

# 60% 꺾충 댐 양파 물가 안정세...무, 6월 초까지 가격 강세

## 농식품부, '주요 채소류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 배추 가격 하향 지속...감자, 이달 중순 안정될 듯

한파 피해, 일조량 부족 등 기상 악화와 재배면적 감소로 강세를 보였던 일부 채소류 가격이 서서히 안정세를 찾고 있다. 양파, 감자 등은 공급량이 회복되면서 가격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무는 6월 초까지 높은 가격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주요 채소류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무는 1월 24~28일 제주지역의 한파 피해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22.3%, 평년보다 22.1%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다.

또 저장량도 감소해 노지 봄무가 본격 출하되는 6월 상순까지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봄무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0%, 5.9% 증가한 1041ha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무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정부 비축 물량 6000t을 하루 50~100t 규모로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기상 이변에 따른 6~8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분무 재배가 거의 없었던 제주도 농가를 대상으로 100ha 규모(7500t 수준)의 계약재배를 통해 비축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무지와 썬무 등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입 무의 가격도 높게 형성돼 가공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상반기 중 수입 무에 대한 할당관세(30%→0%)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60.1% 가격이 올랐던 양파는 3월 중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2023년산 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실제 양파 도매가격은 3월 중순 kg당 1546원에서 3월 하순 1496원, 4월 상순 1453원으로 점차 내려갔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시차를 두고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조생종 양파 생산량은 전년보다 9%, 평년보다 3% 증가한 22만t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 출하되는 중만생종 양파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1만5000ha 수준이며 생산량도 전년보다 약 1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격 성장기인 4~6월 가뭄 등 기상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추의 경우 겨울 배추 생산량이 전년보다 12.8% 증가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5월 초까지 출하되는 겨울 배추 저장량도

전년보다 늘면서 당분간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봄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3710ha 수준이다. 정부는 가뭄, 집중 호우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봄-여름 배추 작황 부진에 대비해 지난 3월22일 봄배추 정부수매비축(8000t) 사전 예고를 시행한 바 있다.

마늘은 2022년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1.6% 감소했으나 정부 비축 물량 1600t 방출 등 영향으로 칸마늘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산 재배면적은 2만5000ha로 전년보다 4.0%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생육 상황은 좋은 편으로 조사돼 생산량도 전년 대비 12.6% 증가한 32만8000t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자는 2023년 저장감자 부족으로 가격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시설 봄감자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2% 증가하고 기상 양호로 이달 중순부터는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 비축감자를 하루 60~100t 규모로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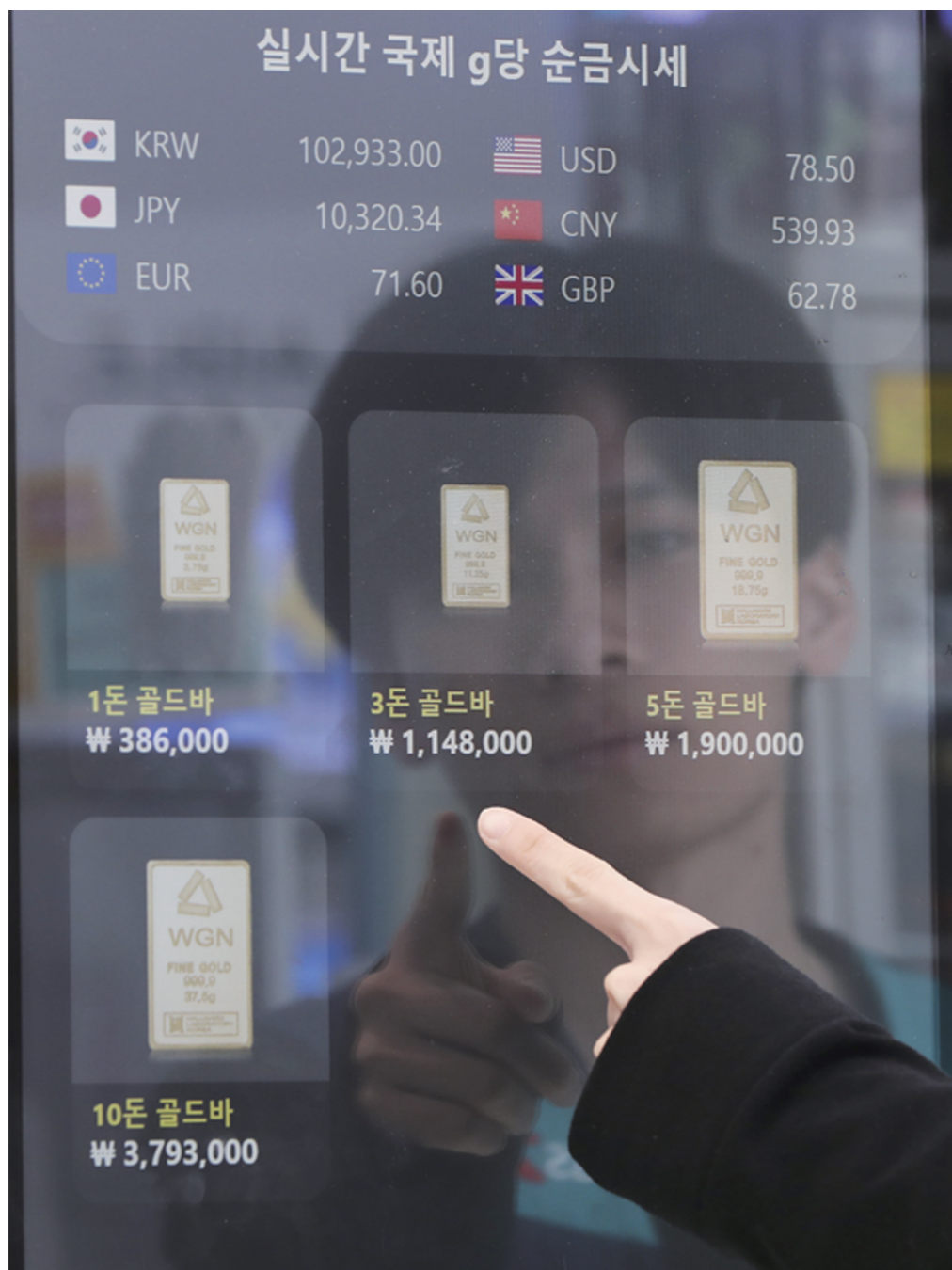
노지 봄감자 재배면적은 1년 전보다 9.0~1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달 중순부터 수확이 시작된다. 정부는 노지 봄감자 수매비축(6500t), 제과업체 가공용 감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설채소의 경우 1월 하순 한파와 2월 중순 일조시간 감소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생육이 늦어져 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달 중순 이후 기온 상승 및 오아, 애호박 등의 출하지가 확대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김중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1월 말 한파 피해 등에 따른 생산 감소 등 영향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높았으나 3월 중순 이

후 기상 호조 및 봄철 생산물량 본격 출하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며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축 물량 방출, 추가 재배면적 확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계속되는 '금값' 상승세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른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금 자판기를 살펴보고 있다.

## 전기료 인상 못 했는데 유가까지 올라...고민 깊어지는 정부

### 한전 재무건전성 vs 민생 안정...'인상 딜레마'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아직 결정 내리지 못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고민이 더 깊어진 모양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연료비가 올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동시에 물가 인상 압력도 강해져 민생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9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85.12달러, 두바이유는 배럴당 84.5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80.7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려가며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긴 것이다. 지난 2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의 예상 못 한 감소 발표에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류를 포함한 연료비가 상승하며 한전의 전력 도매가격(SMP)도 들쭉일 가능성이 커졌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도매가격인데, 지난달 평균 SMP는 kWh(킬

로와트시)당 215.9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kWh당 267.63원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초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며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SMP에 발맞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단가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한전이 발전사에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게 되며,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불어났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32조6034억원에 달한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SMP를 결정하는 연료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SMP 상승에 맞물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탓에 인상 결정도 쉽지 않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경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할 경우 겨울 안정세를 찾

은 물가가 다시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물가 상승에 0.93%포인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물가 오름폭인 4.24% 중 0.93%포인트를 전기요금 등이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이미 당정은 한전의 재무건전성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박대출 국민회림 정책위의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으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었다.

이후 OPEC+의 감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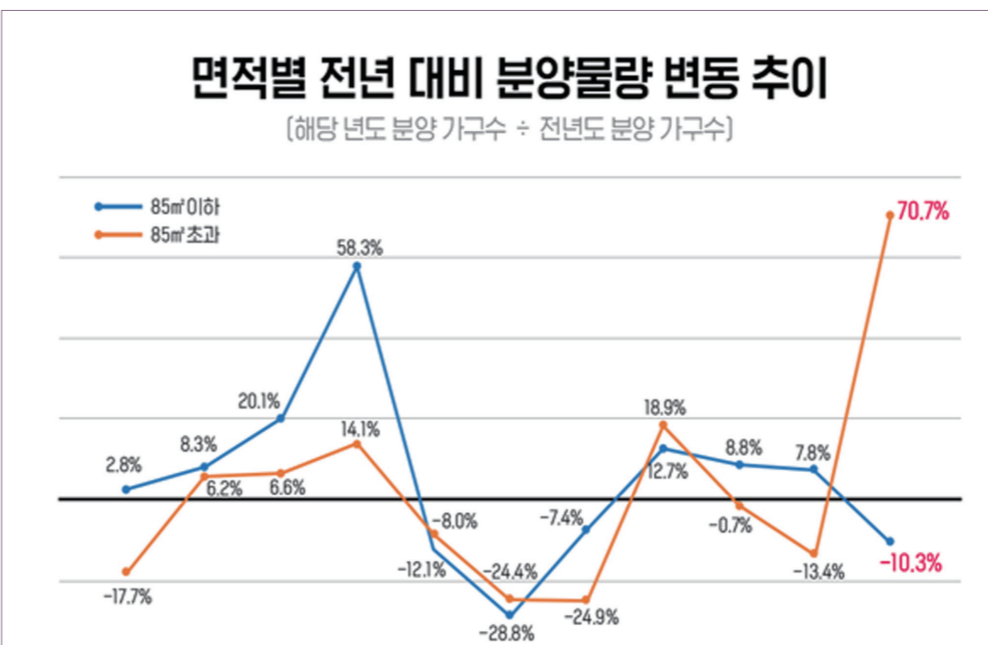
지난 6일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이관 관계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

딜레마가 심화된 만큼 구체적인 인상 여부 등이 결정되기 위해선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비 기자

## 작년 아파트 분양 물량, 중소형 10% 줄고 대형 71% 늘어

### 불황 영향으로 대형 보다 중소형 거래 활발한 편



지난해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1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대형 타입은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분양물량은 36만4970가구로 2021년 38만8350가구 대비 6% 감소했다.

작년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분양물량은

32만9977가구로 2021년 36만7849가구 대비 약 10.3% 줄었다. 2018년(-7.4%) 이후 4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타입은 같은 기간 2만501가구에서 3만4993가구로 70.7% 증가했다.

중소형 타입 분양 물량은 줄었지만 청약시

장에서 꾸준한 수요로 경쟁률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형 타입의 청약자수는 86만2993명으로 2021년 대비 약 58% 감소했고, 중대형 타입 청약자수는 94만2922명으로 약 68%가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수요가 있는 만큼 중소형 타입의 거래 비율도 늘고 있다. 아파트 전체 매매거래량에서 중소형 타입 거래 비율이 2010년~2018년 동안 84~8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부터 연속 상승해 지난해 92.3%까지 올랐다. 대형 타입은 같은 기간 14~15%에서 7.7%까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에서 중소형과 대형타입의 입지가 양극화된 데는 불황 여파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타입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호황기에는 거래가 이뤄지며 수요가 유지됐으나 침체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낮은 만큼 하락세도 두드러졌다. 반면 중소형 타입은 가격 부담이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2021년까지 부동산 호황기를 누리며 대형 타입 인기가 높아졌으나 부동산 불황이 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소형 평형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환 기자

## "본격 캠핑 시즌" 소포장 김치·절임류 인기



봄철 캠핑 시즌이 돌아오면서 소포장 김치 및 절임류 등 휴대하기 좋은 반찬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소포장 김치와 절임류를 내세워 캠핑족 공략에 나섰다.

편의점 CU는 고물가에 대비해 선보인 초저가 '독렘 시리즈'의 인기에 지난해 '볶음 김치 독렘'을 시리즈 상품으로 선보였다. 이 상품은 150g의 소용량으로 날개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CU에서 판매하는 타 브랜드의 소포장 볶음 김치 상품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국내 완제품 김치 시장을 선도하는 중가는 젊은 캠핑족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가수 백가가 직접 디자인한 ▲중가 구워먹는 김치 ▲중가 찜 싸먹는 김치 등 2종을 내놓았다. 해당 제품은 구운 고기와 잘 어울릴 뿐 아니라 화·훈제오리 등 다양한 음식과 궁합이 좋다.

뉴시스